청산도에 집 짓기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느린섬 여행학교

대지위치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중리 372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12,730㎡
건축면적	905.57㎡
연면적	1,061.48㎡
건폐율	7.11%
용적률	8.34%
용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지상 2층
최고높이	11.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경골목구조
주요 외장재료	자연석(청산), 적삼목, 드라이비트

향토역사문화전시관

대지위치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6-3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1,799.00㎡
건물규모	지상 1층
구조	석조/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
주요 외장재료	자연석(기존), 아연도철망, 드라이비트, 적삼목, 수성페인트

방문자센터

대지위치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30-19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대지면적	4,711.00㎡
건축면적	348.81㎡
연면적	408.53㎡
건폐율	7.4%
용적률	8.67%
용도	항만시설 (방문자센터+어판장)
건물규모	지상 2층
최고높이	10.2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 외장재료	자연석(청산), 이빼목, 스테인레스 스틸, 내산에폭시페인트(선박용), 전벽돌

ⓒ오우재

상 **청산도**
하 **청산도 도청항**

ⓒ오우재

ⓒ오우재

상 **청산도 마을안길 풍경**
하 **청산도 상서리 돌담 풍경**

방문자센터와 도청항

느린섬 여행학교 전경

©김재웅

ⓒ김재윤

ⓒ김재윤

상 **방문자센터 전경**
하 **방문자센터 돌벽과 열린 통로**

ⓒ김재윤

ⓒ김재윤

상 **느린섬 여행학교 슬로푸드 작업장**
하 **느린섬 여행학교 관리사**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비에 우선
투자하던
관행을 극복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필요한 시설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섬을
가꾸기 시작했다.

ⓒ오우재

ⓒ오우재

상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전경**
하 **향토역사문화전시관 목조 트러스**

청산도는 남해안 다도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푸를 청(靑) 자와 뫼 산(山) 자로 이름 지은 섬답게 산과 하늘과 바다가 모두가 푸르다. 4월의 '청산도 걷기 축제' 기간에는 유채꽃과 청보리로 섬 곳곳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쾌청한 여름엔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며, 가을엔 신작로를 따라 붉은 단풍이 관광객을 맞는다.

1990년대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서편제>의 촬영지로 세간에 알려진 이후 <봄의 왈츠>, <1박2일>, <최고다 이순신>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매년 섬을 찾는 이들이 늘어 작년에는 3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산도를 다녀갔다.

청산도는 매우 멀리 있다. 이 섬에 가기 위해서는 완도를 들러야 하는데, 완도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서울에서 5시간 넘게 소요된다. 완도항에서 청산도 도청항까지 가는 데도 여객선을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완도여객선터미널과 여객선 내에는 다음과 같은 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불편함은 느림의 여유가 되고, 기다림은 느림의 풍요가 되고, 심심함은 느림의 미덕이 됩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삶의 쉼표가 되는 섬, 청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청산도는 불편하고, 기다려야 하고, 심심하다'는 속뜻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섬 내의 부족한 편의시설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숙박시설과 식당이 변변치 않을 뿐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섬 내 유일한 도회지인 도청항에도 그 흔한 노래방 하나 없을 만큼 이 섬은 놀 거리가 전혀 없는 심심한 곳이었다.

ⓒ오우제

청산도 도청항

청산도 마을안길 풍경
청산도 상서리 돌담 풍경

ⓒ오수석

청산도는 외로운 섬이기도 하다. 다도해 섬들이 대체로 서너 개가 모여 군도를 이루는 것과 달리 청산도는 홀로 바다 한가운데에 외롭게 떠 있다. 군도에서는 섬 사이의 잔잔한 바다에서 양식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지만 청산도의 주민들은 농업과 축산업을 주산업으로 삼고 있다. 왜구의 잦은 침범으로 여말선초 때는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 한때 대역죄인의 영구 위리안치 유배지로도 활용되었던 청산도는 외로움을 품고 있는 섬이다.

청산도는 느림의 섬이다. 사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만큼 청산도는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유지해 왔고 오랜 시간 주민들이 가꿔온 삶의 무늬를 잘 간직해 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 소를 이용한 다랭이논 경작,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어로시설인 독살, 전통장례 풍습인 풍장 초분 등 묵힘과 삭힘이 빚어 낸 풍경들은 청산도를 여유의 섬으로 만들었다.

군청에서 전략적으로 청산도를 가꿔 나가게 된 것은 완도군의 주요 관광지였던 명사십리와 윤선도 유적지의 교통환경 변화 때문이었다. 이제 완도읍을 거치지 않고 신지도와 보길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완도읍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것이다.

청산도는 2009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완도군의 핵심 관광지가 되었다. 완도군청은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비에 우선 투자하던 관행을 극복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섬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고립된 섬 특유의 수려한 경관을 인위적인 시설로 채워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여 천천히 청산도 가꾸기 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오우재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한 청산도에 집 짓기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방문자센터(2011년 신축), 향토역사문화전시관(2012년 옛 면사무소 리모델링), 상서리 돌담체험장(2012년 신축), 느린섬 여행학교(2012년 청산중학교 동분교 리모델링), 슬로푸드 작업장(2013년 신축), 여행학교 관리사(2013년 신축), 느린섬 작가의 집(2013년 마을회관 리모델링), 청산 파시거리(2013년 도시디자인) 등 5년째 건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산도 방문자센터

청산도 방문자센터는 도청항 입구에 위치한 관광안내 복합시설이다. 관광안내소를 비롯하여 여객선 매표소, 공중화장실, 수협 어판장, 슬로시티 사무실, 청년회 사무실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 방문자센터는 청산도를 찾는 사람이 맨 처음 만나는 건물이다. 섬에 내린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다음 행선지로 찾아 나선다. 낯선 관광객에게는 청산도의 관광 및 숙박 정보 등을 얻는 안내센터로, 섬 주민에게는 육지를 오갈 때 잠시 머무는 작은 사랑방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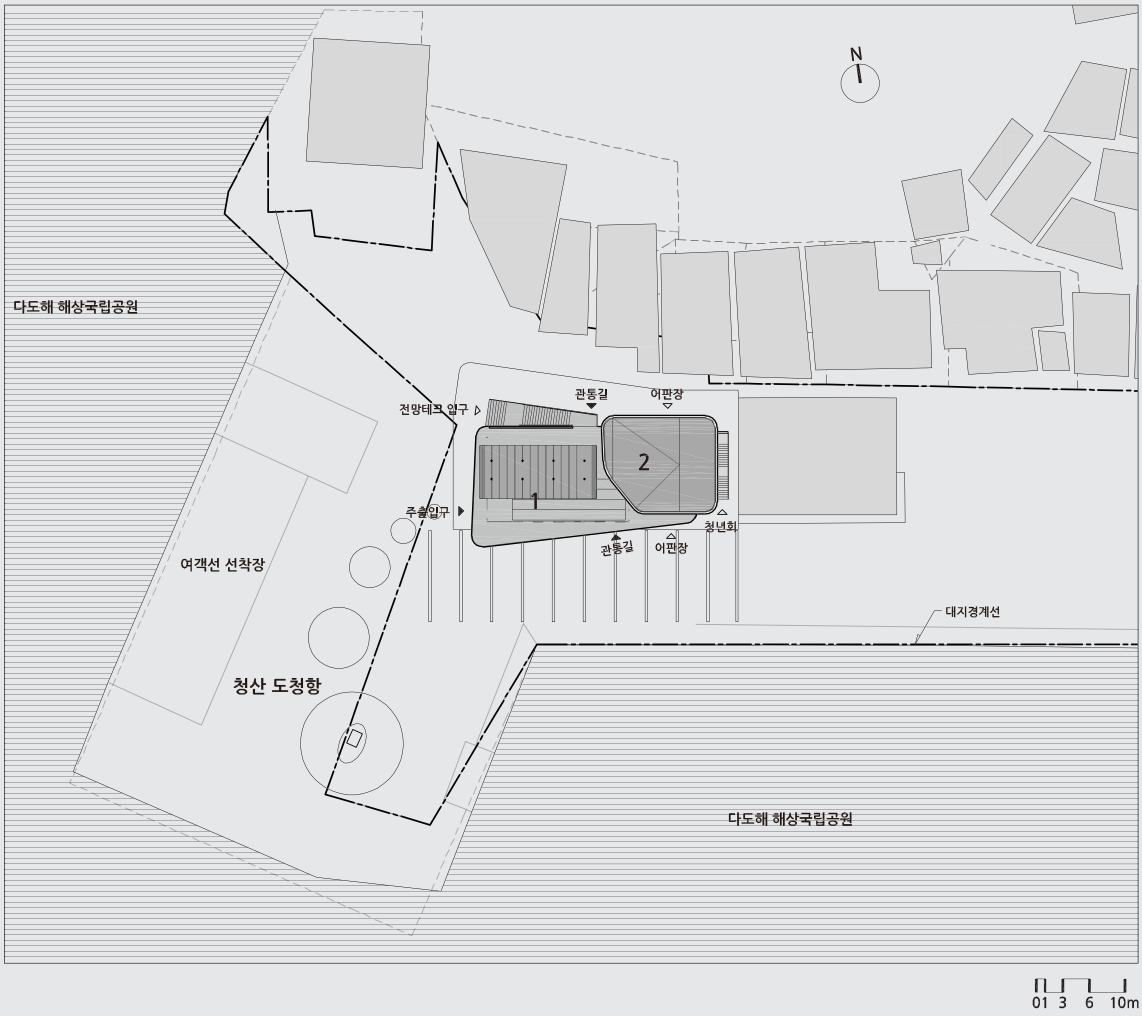
청산도 방문자센터는 바다로 열린 돌집이다. 이 건물은 바다를 향해 열린 입면을 갖는다. 전면과 측면의 창들이 바다의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방문자센터 위로 돌출된 데크는 바다로 열린 또 다른 창이다.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도청항 내 유일한 전망대로, 낮은 지붕 아래에서 항구로 드나드는 배를 볼 수 있고, 서녘 하늘 섬 너머로 내려앉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청산도에는 돌이 많은데, 제주의 돌과 달리 표면이 매끄러워 청산의 돌담은 황토를 접착제로 차곡차곡 들여쌓고 그 사이에 담쟁이덩굴 씨앗을 뿌려 돌담 속에 뿌리내리게 한 뒤 담쟁이덩굴이 돌담을 덮어 외부 철망 역할을 하게 하는 구법으로 세워졌다. 방문자센터의 오른쪽 부분은 청산도의 돌로 외관을 마무리했는데, 청산 돌담의 구법을 응용하여 바깥에 아연도철망을 두르고 그 속에 청산도의 자연석을 채워 놓았다.

그리고 청산도의 마을 담장에는 각(角)이 없다. 모든 마을의 담장은 서로 밀고 당기며 원만한 곡선으로 둥글려 있다. 마을 담장의 모습을 닮게 하고 싶어 방문자센터의 모서리는 어김없이 둥글게 말려 있다.

ⓒ김재은

방문자센터 전경
방문자센터의 열린 통로



방문자센터
배치도

1 전망데크
2 수협어판장

청산도 방문자센터는 한 지붕 다섯 가족의 집합체다. 이 건물은 하나의 독립된 관리주체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건물의 주인이 없는 셈이다. 1층의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은 면사무소가, 여객선 매표소는 농협이, 어판장은 수협이, 2층의 두 사무실은 마을청년회와 슬로시티위원회가 각각 관리한다. 한 건물 안에 다섯 주체가 들어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마다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와 계단이 개별적으로 위치한다. 건물 주변으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건물을 가로지르는 통로를 배치하였다. 공중화장실 통로와 어판장 내부 통로는 방문자센터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오우제

리모델링된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입구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

2012년 농어촌건축대전 대상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도청항 언덕배기에 있던 옛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도청항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곳에 1957년 석조로 지어진 본관을 비롯하여 별관, 직원관사, 재래식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다.

면사무소가 이전한 후 직원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그냥 버려져 있었다. 면사무소 바로 아래에 있는 안통길은 한때 고등어 파시로 흥청망청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고등어 어획량이 줄자 간독(고등어를 염장해 보관하던 곳)과 얼음창고·여관·주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며 을씨년스러운 곳이 되었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면사무소마저 동쪽 마을로 이전하면서 이 길은 생기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청산도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곳의 과거 이력에 관심이 쏠리면서 청산 파시거리로 재탄생하였는데, 거점으로서 옛 면사무소를 전시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었고, 향토역사문화전시관으로 재탄생되었다.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계획된 프로그램이 없는 전시관이다. 애당초 방치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데, 건물 자체에 대한 진단과 새 단장이 설계의 시작과 끝이었다.

대지에 놓인 4개의 건물 중 옛 면사무소 본관은 청산도 자연석을 다듬어 쌓은 석조 건물이고, 별관은 철근콘크리트, 관사동과 화장실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본관의 단단히 고정된 천장 합판을 뜯어내자 50여 년 동안 숨어 있던 목조 지붕 트러스가 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약간 거칠지만 제법 튼튼히 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마룻대에 적힌 상량문은 이 건물이 단기 4290년에 지어졌다는 건물 내력을 알려주었고, 두툼한 돌벽과 웅장한 목조 트러스는 본관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동쪽에 있는 별관은 지붕과 보로 구성된 콘크리트 라멘 구조의 평지붕 건물이었기 때문에 구조를 보강하면 지붕도 활용이 가능해 보였다.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건물 상태 진단 후에 본관은 제1전시실로, 별관은 체험장과 옥상 전망대, 관사동은 제2전시실로 계획했고, 화장실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 본관은 기존의 외관을 유지하고, 별관은 철망으로 주변을 싸고 덩굴장미를 심었으며, 숙소동과 화장실 앞에는 청산도 자연석으로 덧벽을 세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제1전시실 내부는 전시장뿐만 아니라 집회실과 영화관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커다란 공간으로 디자인했는데, 지붕 목구조물은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낡은 외곽 벽면과 바닥은 새로 정리하여 새것과 옛것의 어울림을 의도하였다. 아울러 전시패널은 자작나무 합판을 문짝 형태로 설치하여 열고 닫으면서 전시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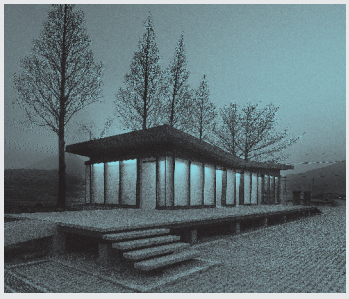
청산도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건축계획 이후 전시 내용을 정하였는데, 현재 제1전시실에서는 청산도의 사계 사진전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때로는 이곳에서 작은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제2전시실은 원래 목적에 맞게 청산도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상설 전시가, 체험장은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느림카페로 공간을 채워 나가고 있다.

ⓒ오우제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전경
향토역사문화전시관 목조 트러스

향토역사문화전시관
단면도

A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제 1전시실
B 느림카페·전망데크
C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제2전시실
D 생활사 전시실



© 김재경

느린섬 여행학교
슬로푸드 작업장
관리사

느린섬 여행학교

-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ARCASIA Awards for Architecture 2014, Mention(Category B)

느린섬 여행학교는 청산도 동쪽에 위치한 청산중학교 동분교를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09년 3월 폐교되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슬로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1층 부분을 슬로푸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단출한 2층 규모의 교사는 전형적인 시골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여행객 숙소로 재탄생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지붕 슬라브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기존 계획안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축 자문역으로 참여하다가 결국 재설계까지 하게 되었다. 구조기술사의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지붕과 2층 벽체 및 기둥을 철거하기로 하여, 기존 교사는 단층의 기다란 건물이 되었고, 2층 바닥은 여행객 숙소를 위한 새로운 대지가 된 셈이었다. 그 위에 구조보강용 철골로 떠 있는 지반을 조성하여 구조적 전이층을 확보하였는데, 이 공간을 통해 아래층과 간섭 없이 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방수층을 만들 수 있었다. 뜬 지반 위로는 경골목구조로 뾰족한 경사지붕의 다섯 덩어리를 올려놓아, 모든 실이 개별 외부마당을 갖는 관광객 숙소(펜션)로 재구성되었다.

느린섬 여행학교의 외피는 청산도의 자연석이 둘러져 있다. 지역 프로젝트에서 재료의 사용과 주변과의 조화는 항상 고민의 대상인데, 청산도의 돌담쌓기 전통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돌담의 사용은 작은 부분이지만 지역 주민이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지역 재료 사용으로 재료마일리지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역할을 해 큰 의미가 있었다. 2층의 숙소동은 구조와 재료를 같이 하여 목재널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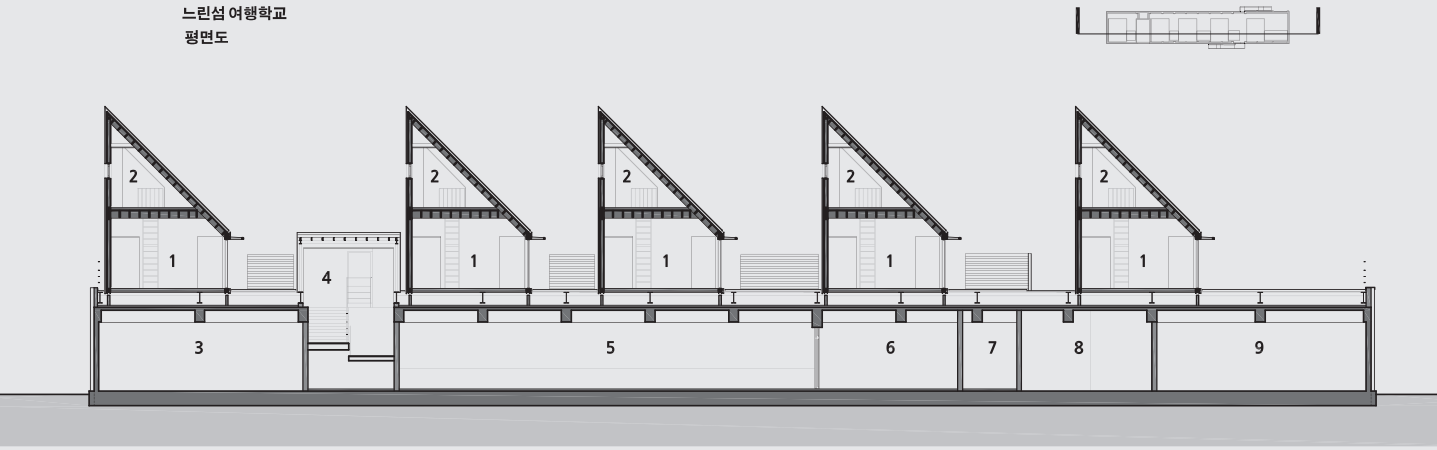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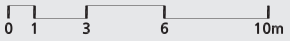
느린섬 여행학교는 섬 곳곳에 무작위로 세워지고 있던 사설 펜션에 대응하는 시설로, 군청이 정책적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이 때문에 주변 민박을 보호하고 고가의 펜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간 가격으로 숙박비를 책정하였다. 또 마을 주민으로 구성

된 사회적 기업이 운영토록 하여 주민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물이다.

이에 부응하듯 매년 이곳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였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 3월에는 슬로푸드 작업실을 교사동 북동쪽에 새로 지어 이전하고, 교문 옆에 관리실과 캠핑족을 위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별동을 신축하여 전체적인 공간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기존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억과 추억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느린섬 여행학교는 이에 더해 편리하면서 느리고 여유로운 휴게공간으로 재구성된 여행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느린섬 여행학교
평면도



1 테마동
2 테마동 다락
3 사무실·홍보관
4 계단실
5 식당
6 주방
7 휴게실
8 입구홀
9 창고